

월간 일본경제동향 2022년 12월호

Contents

<통계 요약>	1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2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5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9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10
III.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13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15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18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22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26



〈통계 요약〉

한일 무역의 2022년 11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51,890	-14.0	58,881	2.7	-6,991
일본 부분	2,311	-17.8	4,313	-11.3	-2,002
일본 비중	4.5		7.3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11월 상황

	2021년 11월	2022년 11월	증감률
수출(백만¥, %)	7,366,963	8,837,093	20.0
수입(백만¥, %)	8,340,520	10,866,107	30.3
수지(백만¥, %)	-973,557	-2,029,014	108.4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12월 27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2년 8월		2022년 9월		2022년 10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일본 전체(억¥)	12,225	2,586	25,086	7,137	18,672	3,312
한국 부분(억¥)	90	46	613	671	816	55
한국 비중(%)	0.7	1.8	2.4	9.4	4.4	1.7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2년 10월 11일, 11월 9일, 12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11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1년11월	2022년11월	증감률		2021년11월	2022년11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94,358	459,906	387.4	전체	20,682	934,500	4418.4
방한 일본인	1,623	62,422	3746.1	방일 한국인	2,021	315,400	15506.1
일본인 비중	1.72	13.57		한국인 비중	9.77	33.75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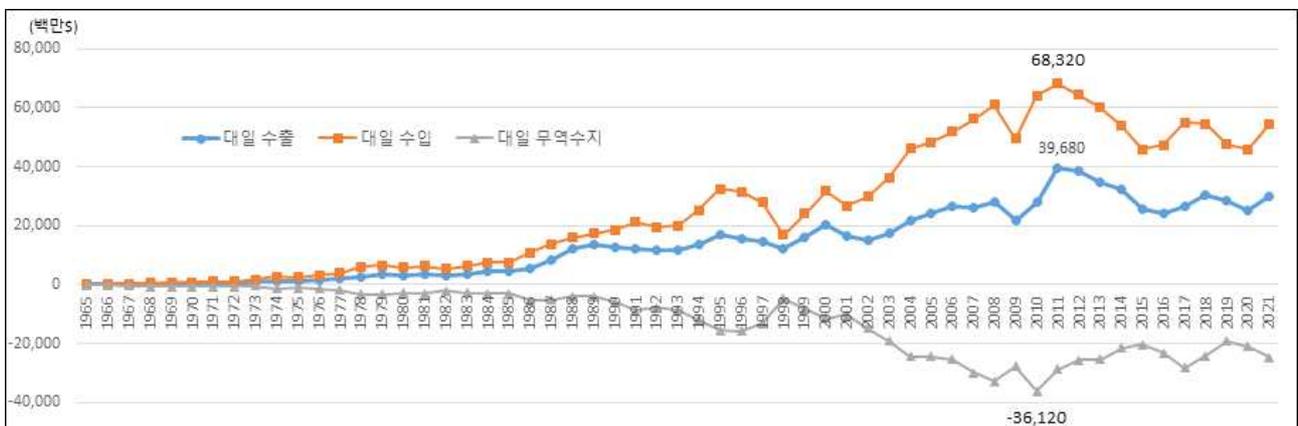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고,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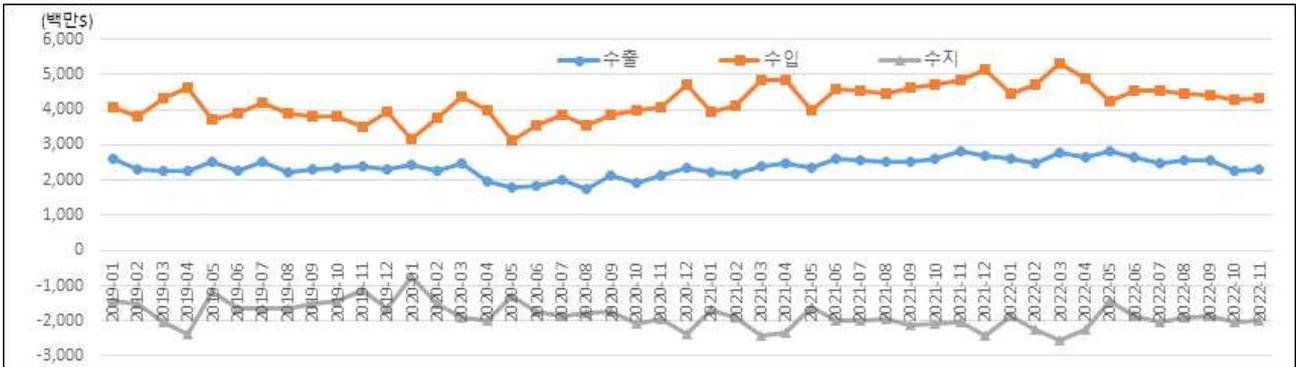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1965년 이후 통계에서 한 해도 예외 없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2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6.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2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2021년에는 대일 수출(300.6억 달러)과 수입(546.4억 달러)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수입 증가액이 수출 증가액보다 더 커서 대일 무역적자(245.8억 달러)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COVID-19 발생 이후 대일(對日) 수출 수입이 감소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2년 11월에는 전월대비 수출과 수입이 모두 소폭 증가하였음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대일 수출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2년 11월에는 전월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 대일 수입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2년 11월에는 전월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5월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2년 11월에는 전월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 한일 무역의 2022년 11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2년 11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일(對日)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7.8% 감소하였고, 대일 수입은 동(同) 11.3% 감소하였음

〈표1〉 한일 무역의 2022년 11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51,890	-14.0	58,881	2.7	-6,991
일본 부분	2,311	-17.8	4,313	-11.3	-2,002
일본 비중	4.5		7.3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2년 11월에 한국전체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4.0% 감소하여 518.9억 달러가 되었고, 대일 수출은 동(同) 17.8% 감소하여 23.1억 달러가 되었음
- 2022년 11월에 한국전체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하여 588.8억 달러가 되었고, 대일 수입은 동(同) 11.3% 감소하여 43.1억 달러가 되었음

- 2022년 11월에 한국 전체 무역수지는 69.9억 달러 적자였고, 대일 무역수지는 20.0억 달러 적자였음
 - 2022년 11월에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경우는 4.5%였고, 수입 경우는 7.3%였음
- <표2> 및 <표3>은 2022년 11월 대일(對日) 수출 및 수입 각각 MTI 코드 2단위 기준 상위 10개 품목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 경우는 1개 품목이, 수입 경우는 2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표2> 한국의 2022년 11월 대일(對日) 수출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1년 11월(백만\$, %)			2022년 11월(백만\$, %)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2,813	32.5	-2,051	2,311	-17.8	-2,002
1	광물성연료	533	131.2	448	397	-25.6	304
2	철강제품	389	41.2	-298	306	-21.4	-257
3	정밀화학제품	279	39.6	-128	212	-24.0	-84
4	전자부품	195	39.1	-615	156	-19.7	-769
5	석유화학제품	156	82.4	-147	126	-19.2	-121
6	산업용전자제품	130	-1.7	-98	105	-19.5	-105
7	기초산업기계	63	-4.0	-138	98	55.0	-74
8	농산물	117	12.5	92	92	-21.4	67
9	금속광물	146	32.6	100	78	-47.0	-18
10	기계요소공구및금형	82	20.3	-43	77	-6.1	-28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표3> 한국의 2022년 11월 대일(對日) 수입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1년 11월(백만\$, %)			2022년 11월(백만\$, %)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4,864	20.0	-2,051	4,313	-11.3	-2,002
1	전자부품	809	28.5	-615	925	14.3	-769
2	철강제품	687	85.9	-298	563	-18.1	-257
3	정밀기계	533	27.3	-468	483	-9.5	-435
4	정밀화학제품	407	12.1	-128	296	-27.2	-84
5	석유화학제품	303	-4.6	-147	247	-18.4	-121
6	산업용전자제품	227	-5.6	-98	210	-7.5	-105
7	기초산업기계	201	-6.5	-138	172	-14.6	-74
8	플라스틱제품	146	31.5	-98	154	5.7	-113
9	수송기계	208	-5.5	-145	151	-27.2	-103
10	전기기기	238	8.3	-187	148	-37.8	-76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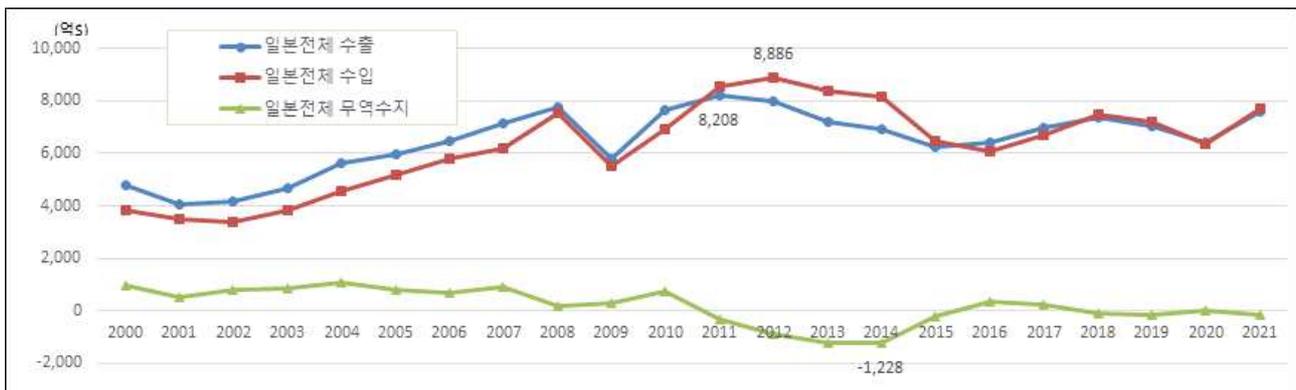
- 수출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기초산업기계(55.0%) 1개 품목이 증가한 반면, 금속 광물(-47.0%), 광물성연료(-25.6%), 정밀화학제품(-24.0%) 등 9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전자부품(14.3%), 플라스틱제품(5.7%) 2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전기기기(-37.8%), 정밀화학제품(-27.2%), 수송기계(-27.2%) 등 8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3>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 2016년과 2017년 흑자, 2018년과 2019년 적자, 2020년 흑자, 2021년 적자로 나타남
- 2020년 일본전체 수출은 6,399억 달러, 수입은 6,357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무역수지는 42억 달러 흑자였음
- 2021년 일본전체 수출은 7,586억 달러, 수입은 7,716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무역수지는 130억 달러 적자였음

□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11월 상황

- <표4>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2년 11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표4>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11월 상황

	2021년 11월	2022년 11월	증감률
수출(백만¥, %)	7,366,963	8,837,093	20.0
수입(백만¥, %)	8,340,520	10,866,107	30.3
수지(백만¥, %)	-973,557	-2,029,014	108.4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12월 27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자동차, 건설용·광산용기계, 선박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0.0% 증가하여 8조 8,371억 엔이 되었음
 - 수입은 원조유(原粗油), 석탄, 액화천연가스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0.3% 증가하여 10조 8,661억 엔이 되었음
 -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동월대비 108.4% 증가하여 2조 290억 엔이 되었음
- <표5>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2년 11월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부 감소 지역도 있지만 수출 수입 모두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54.3%, 수입의 45.8%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아시아 무역수지는 1,822억 엔 적자였음
 - 중국은 수출의 18.5%, 수입의 21.4%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중(對中) 무역수지는 6,911억 엔 적자였음
 - 홍콩은 수출의 4.2%, 수입의 0.1%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홍콩 무역수지는 3,617억 엔 흑자였음
 - 대만은 수출의 6.8%, 수입의 4.5%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대만 무역수지는 1,073억 엔 흑자였음
 - 한국은 수출의 7.1%, 수입의 3.5%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한(對韓) 무역수지는 2,458억 엔 흑자였음
 - 미국은 수출의 19.5%, 수입의 9.6%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미(對美) 무역수지는 6,803억 엔 흑자였음
 - 서유럽 전체는 수출의 11.3%, 수입의 11.3%를 차지하였음
 - 독일은 수출의 2.5%, 수입의 2.7%를 차지하였음
 - 영국은 수출의 1.5%, 수입의 0.8%를 차지하였음

〈표5〉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11월 지역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지금액	증감률
총액	8,837,093	100.0	20.0	10,866,107	100.0	30.3	-2,029,014	108.4
아시아	4,797,042	54.3	11.6	4,979,233	45.8	26.9	-182,191	-
중국	1,632,117	18.5	3.5	2,323,221	21.4	17.3	-691,104	71.2
홍콩	373,078	4.2	15.5	11,342	0.1	21.7	361,736	15.4
대만	597,047	6.8	11.9	489,709	4.5	37.8	107,338	-39.7
대한민국	630,307	7.1	18.0	384,557	3.5	16.0	245,750	21.2
싱가포르	231,541	2.6	17.7	105,253	1.0	26.2	126,288	11.5
태국	375,589	4.3	23.1	320,015	2.9	23.8	55,574	19
말레이시아	181,685	2.1	11.5	345,122	3.2	54.6	-163,437	171.0
인도네시아	192,253	2.2	30.4	359,856	3.3	82.9	-167,603	239.2
필리핀	142,661	1.6	23.6	123,980	1.1	6.1	18,681	-
베트남	215,584	2.4	7.1	348,310	3.2	51.4	-132,726	360.1
인도	171,559	1.9	48.7	65,411	0.6	-6.1	106,148	132.3
대양주	240,970	2.7	5.1	1,134,614	10.4	62.2	-893,644	90.0
호주	186,654	2.1	6.4	1,055,426	9.7	64.6	-868,772	86.5
뉴질랜드	29,329	0.3	-3.5	27,562	0.3	-1.3	1,767	-27.9
북미	1,825,601	20.7	32.8	1,242,483	11.4	23.5	583,118	58.0
미국	1,722,409	19.5	32.6	1,042,094	9.6	21.5	680,315	54.0
캐나다	103,192	1.2	36.8	199,369	1.8	35.2	-96,177	33.6
중남미	377,821	4.3	47.7	463,539	4.3	33.1	-85,718	-7.2
서유럽	1,001,646	11.3	31.6	1,229,933	11.3	20.7	-228,287	-11.4
독일	219,471	2.5	17.9	291,958	2.7	23.2	-72,487	42.5
영국	131,050	1.5	27.5	87,107	0.8	33.9	43,943	16.4
프랑스	80,405	0.9	12.2	136,867	1.3	-18.9	-56,462	-41.9
네덜란드	153,446	1.7	36.7	36,387	0.3	39.7	117,059	35.8
이탈리아	75,297	0.9	75.3	133,655	1.2	5.6	-58,358	-30.2
벨기에	71,602	0.8	5.4	137,379	1.3	433.1	-65,777	-
스위스	55,199	0.6	24.3	96,963	0.9	3.8	-41,764	-14.7
스웨덴	18,911	0.2	63.0	34,044	0.3	-2.1	-15,133	-34.6
아일랜드	22,234	0.3	97.6	68,207	0.6	-9.3	-45,973	-28.1
스페인	39,426	0.4	48.9	72,866	0.7	47.7	-33,440	46.4
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	200,115	2.3	15.4	215,703	2.0	-25.8	-15,588	-86.7
중동	290,788	3.3	51.2	1,400,412	12.9	56.9	-1,109,624	58.4
아프리카	103,109	1.2	24.2	200,169	1.8	24.8	-97,060	25.4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12월 27일)에 근거하여 작성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2년 11월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 수입 모두 9개 품목 전부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는 수송용기기(33.9%), 기타(27.1%), 광물성연료(19.9%) 등 9개 품목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 증감기여도 측면에서는 수송용기기(6.9%), 기타(3.8%), 일반기계(3.6%)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는 광물성연료(60.9%), 화학제품(32.4%), 식료품(27.9%) 등 9개 품목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 증감기여도 측면에서는 광물성연료(14.1%), 전기기기(3.8%), 화학제품(3.6%)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표6>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11월 품목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총액	8,837,093	100.0	20.0	20.0	10,866,107	100.0	30.3	30.3
1 식료품	104,381	1.2	16.1	0.2	879,909	8.1	27.9	2.3
2 원료품	129,280	1.5	13.6	0.2	640,816	5.9	4.2	0.3
3 광물성연료	137,201	1.6	19.9	0.3	3,112,560	28.6	60.9	14.1
4 화학제품	1,003,634	11.4	10.7	1.3	1,235,453	11.4	32.4	3.6
5 원료별제품	1,011,896	11.5	13.5	1.6	892,503	8.2	12.7	1.2
6 일반기계	1,669,068	18.9	18.9	3.6	843,175	7.8	18.5	1.6
7 전기기기	1,487,126	16.8	11.4	2.1	1,617,797	14.9	24.0	3.8
8 수송용기기	1,996,772	22.6	33.9	6.9	370,543	3.4	2.9	0.1
9 기타	1,297,736	14.7	27.1	3.8	1,273,351	11.7	27.2	3.3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12월 27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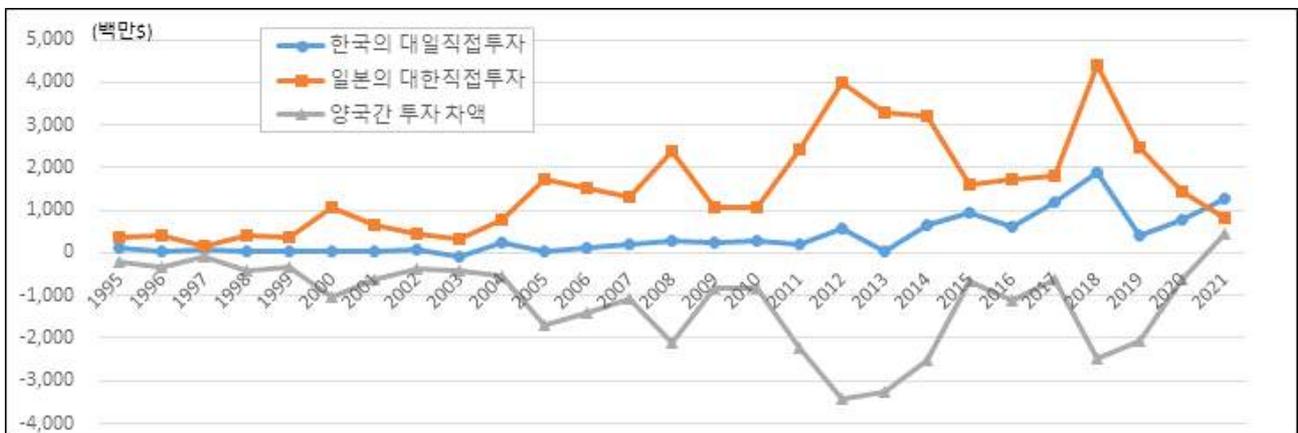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는데, 2021년에는 역전되었음

<그림4>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는데, 2021년 경우도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한일간 갈등 및 COVID-19 등으로 연속적으로 전년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음
- 2021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12.60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273.25억 달러의 4.61%를 차지하였음
- 2021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8.25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1,498.14억 달러의 0.55%를 차지하였음
- 2021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보다 4.35억 달러 많았음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7>은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7>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2년 8월		2022년 9월		2022년 10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일본 전체(억¥)	12,225	2,586	25,086	7,137	18,672	3,312
한국 부분(억¥)	90	46	613	671	816	55
한국 비중(%)	0.7	1.8	2.4	9.4	4.4	1.7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2년 10월 11일, 11월 9일, 12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2년 9월에 25,086억 엔에서 10월에 18,672억 엔으로 감소하였음
- 한편,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9월에 613억 엔에서 10월에 816억 엔으로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차지하는 한국 비중은 9월에 2.4%에서 10월에 4.4%로 증가하였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2년 9월에 7,137억 엔에서 10월에 3,312억 엔으로 감소하였음
- 한편,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2년 9월에 671억 엔에서 10월에 55억 엔으로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차지하는 한국 비중은 2022년 9월 9.4%에서 10월에 1.7%로 감소하였음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

세를 보여 왔음

- 2020년에는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1,460억 달러로 되었지만, 대내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상최대인 615억 달러에 달했으며, 대외-대내 차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여 845억 달러로 되었음
- 2021년에는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1,498억 달러, 대내직접투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273억 달러로 되었고, 대외-대내 차액은 전년대비 증가하여 1,225억 달러로 되었음

<그림5>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8>은 2022년 10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18,672억 엔이었으며,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3,312억 엔이었음
-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18,672억 엔(실행 63,864; 회수 45,192)으로 플러스였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지역별로 아시아(28.3%), 북미(24.6%), 중남미(22.2%), 유럽(19.6%), 대양주(4.4%)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 대외직접투자 순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곳은 미국(4,233억 엔), 네덜란드(1,530억 엔), 태국(1,336억 엔) 등이었음
-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3,312억 엔(실행 40,488; 회수 37,176)으로 플러스였음

-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지역별로 북미, 중남미, 대양주, 중동 경우는 플러스였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경우는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 대내직접투자 플러스 순투자를 많이 한 곳은 미국(2,553억 엔), 영국(928억 엔) 등이었음

〈표8〉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2022년 10월 상황

	대외직접투자(억 엔, %)				대내직접투자(억 엔, %)			
	실행 Execution	회수 Withdrawal	순투자 Net	순투자 구성비	실행 Execution	회수 Withdrawal	순투자 Net	순투자 구성비
합계	63,864	45,192	18,672	100.0	40,488	37,176	3,312	100.0
아시아	16,842	11,550	5,292	28.3	4,028	4,722	-694	-21.0
중국	1,397	709	689	3.7	1,415	1,391	24	0.7
홍콩	643	620	23	0.1	764	1,318	-555	-16.8
대만	374	189	185	1.0	75	42	33	1.0
한국	847	31	816	4.4	76	21	55	1.7
싱가포르	9,996	8,895	1,102	5.9	1,518	1,727	-209	-6.3
태국	1,806	470	1,336	7.2	87	151	-64	-1.9
인도네시아	552	184	368	2.0	20	38	-18	-0.5
말레이시아	313	140	173	0.9	68	32	37	1.1
필리핀	235	81	155	0.8	1	1	-1	0.0
베트남	327	143	184	1.0	1	—	1	0.0
인도	241	18	223	1.2	—	—	—	—
북미	21,242	16,647	4,595	24.6	12,957	10,396	2,561	77.3
미국	20,790	16,558	4,233	22.7	12,948	10,395	2,553	77.1
캐나다	452	89	363	1.9	9	1	8	0.2
중남미	5,555	1,405	4,150	22.2	2,489	902	1,588	47.9
멕시코	284	375	-92	-0.5	1	1	-0	-0.0
브라질	504	52	452	2.4	—	—	—	—
케이만제도	1,234	212	1,022	5.5	2,416	7	2,409	72.7
대양주	1,499	670	829	4.4	5,277	5,176	101	3.0
호주	1,238	534	704	3.8	5,104	5,014	90	2.7
뉴질랜드	252	127	125	0.7	1	—	1	0.0
유럽	17,693	14,036	3,658	19.6	15,727	15,827	-100	-3.0
독일	2,687	2,211	476	2.5	1,502	1,625	-123	-3.7
영국	5,325	5,227	99	0.5	7,538	6,609	928	28.0
프랑스	369	224	145	0.8	986	822	164	5.0
네덜란드	1,896	366	1,530	8.2	1,395	2,118	-723	-21.8
이탈리아	45	15	30	0.2	2,077	2,080	-3	-0.1
벨기에	2,772	2,119	654	3.5	783	696	87	2.6
룩셈부르크	2,001	1,876	125	0.7	102	40	62	1.9
스위스	585	261	325	1.7	914	1,499	-585	-17.7
스웨덴	97	4	93	0.5	2	9	-8	-0.2
스페인	47	1	46	0.2	94	86	8	0.2
러시아	73	—	73	0.4	1	—	1	—
중동	233	130	103	0.6	9	3	7	0.2
아프리카	801	755	45	0.2	0	150	-150	-4.5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2년 12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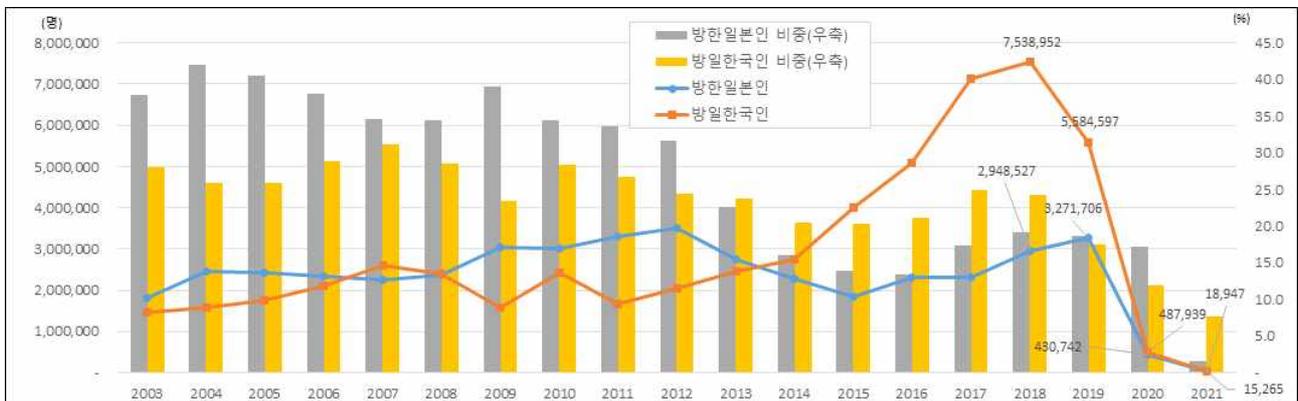
Ⅲ.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한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COVID-19 영향으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방일한국인 및 방한일본인 양쪽 모두 크게 감소하였음

<그림6>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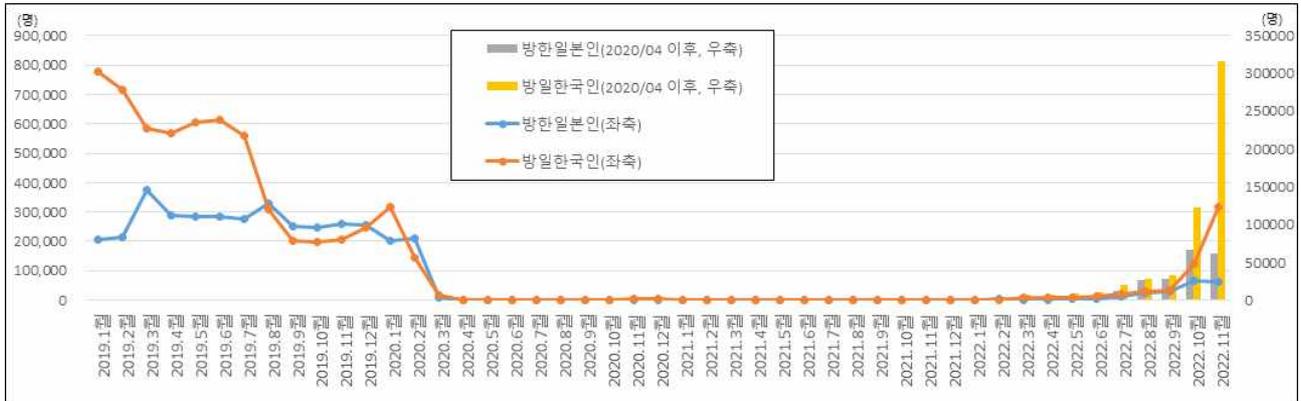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증가하여 3,271,706명에 달하였으나, COVID-19 영향으로 2020년에는 430,742명으로, 2021년에는 15,265명으로 감소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2019년 18.7%, 2020년 17.1%에서 2021년에는 1.6%로 감소하였음(방한외국인 총수는 2019년 17,502,756명, 2020년 2,519,118명, 2021년 967,003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7,538,952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감소하여 5,584,597명이 되었고, COVID-19 영향으로 2020년에 487,939명, 2021년에 18,947명으로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방일외국인 총수의 증가에 기인), 2019년 17.5%에서 2020년 11.9%, 2021년에는 7.7%로 감소하였음(방일외국인 총수는 2019년 31,882,049명, 2020년 4,115,828명, 2021년 245,862명)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7>은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 3월부터 COVID-19 영향으로 방한일본인 방일한국인 양쪽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2022년 3월 이후로는 양쪽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7>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의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월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고, 최근 증가하고 있음
- 방한일본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최근 2022년 3월 이후 증가 추세를 보임(2021년 1월 1,299명, 2월 1,719명, 3월 949명, 4월 872명, 5월 1,403명, 6월 875명, 7월 881명, 8월 2,258명, 9월 1,142명, 10월 1,237명, 11월 1,623명, 12월 1,007명, 2022년 1월 1,162명, 2월 2,934명, 3월 1,397명, 4월 2,231명, 5월 3,701명, 6월 5,855명, 7월 11,789명, 8월 26,482명, 9월 27,560명, 10월 67,159명, 11월 62,422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감소 그리고 3월부터 급감하였으나,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방일한국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최근 2022년 3월 이후 증가 추세를 보임(2021년 1월 2,535명, 2월 910명, 3월 1,956명, 4월 1,076명, 5월 950명, 6월 835명, 7월 1,808명, 8월 1,647명, 9월 2,224명, 10월 1,921명, 11월 2,021명, 12월 1,064명, 2022년 1월 1,264명, 2월 913명, 3월 6,694명, 4월 7,699명, 5월 8,805명, 6월 11,168명, 7월 20,384명, 8월 28,515명, 9월 32,764명, 10월 122,900명, 11월 315,400명)

□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11월 상황

- <표9>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11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교류인원이 COVID-19 영향으로 인해 2019년동월대비 방한일본인 및 방일한국인 모두 크게 감소하였으나, 전년(2021년)동월대비로는 방한일본인 및 방일한국인 모두 크게 증가하였음

<표9>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11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1년11월	2022년11월	증감률		2021년11월	2022년11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94,358	459,906	387.4	전체	20,682	934,500	4418.4
방한 일본인	1,623	62,422	3746.1	방일 한국인	2,021	315,400	15506.1
일본인 비중	1.72	13.57		한국인 비중	9.77	33.75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2022년 11월 방한외국인(교포 포함) 전체 수는 459,906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7.4% 증가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62,42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46.1% 증가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21년 11월 1.72%에서 2022년 11월 13.57%로 증가하였음
- 2022년 11월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934,5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18.4% 증가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315,4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506.1% 증가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21년 11월 9.77%에서 2022년 11월 33.75%로 증가하였음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8>은 일본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이후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1964년 이후 1970년까지는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1971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1971년부터 2014년까지 출국일본인수가 방일외객수를 초월하였으나, 2015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아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관광객 유치로 인해 방일외객수는 2019년에 31,882,049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출국일본인수 20,080,669명보다 11,801,380명 더 많음
- COVID-19 영향으로 인해 2020년부터 방일외객수와 출국일본인수 모두 감소하였는데, 방일외객수는 2020년 4,115,828명, 2021년 245,862명으로, 출국일본인수는 2020년 3,174,219명, 2021년 512,244명으로 되었음

<그림8>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인적교류의 2022년 11월 상황

- <표10>은 2022년 11월 방일외객수의 국가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전체 수가 COVID-19 영향으로 2019년동월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전년(2021년)동월대비로는 크게 증가하였음
 - 2022년 11월 방일외객 전체 수는 934,500명으로 2019년동월(2,441,274명)대비 61.7% 감소하였고, 전년동월(20,682명)대비 4418.4% 증가하였음
 - 방일외객 중 한국인 수는 315,400명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15506.1%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중국인 수는 21,000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558.5%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대만인 수는 99,500명으로 전체의 10.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25412.8%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홍콩인 수는 83,000명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79707.7%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태국인 수는 52,100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 대비 20908.1%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베트남인 수는 33,600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1752.3%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미국인 수는 84,300명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5786.9% 증가한 수치임

〈표 10〉 방일외객수의 2022년 11월 상황

국가·지역	2019년 11월		2021년 11월		2022년 11월		2019년 동월대비 증감률 (%)	2021년 동월대비 증감률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전체	2,441,274	100.0	20,682	100.0	934,500	100.0	-61.7	4418.4
한국	205,042	8.4	2,021	9.8	315,400	33.8	53.8	15506.1
중국	750,951	30.8	3,189	15.4	21,000	2.2	-97.2	558.5
대만	392,102	16.1	390	1.9	99,500	10.6	-74.6	25412.8
홍콩	199,702	8.2	104	0.5	83,000	8.9	-58.4	79707.7
태국	140,265	5.7	248	1.2	52,100	5.6	-62.9	20908.1
싱가포르	65,295	2.7	95	0.5	40,300	4.3	-38.3	42321.1
말레이시아	64,987	2.7	130	0.6	17,500	1.9	-73.1	13361.5
인도네시아	37,213	1.5	688	3.3	17,000	1.8	-54.3	2370.9
필리핀	64,763	2.7	544	2.6	21,700	2.3	-66.5	3889.0
베트남	41,892	1.7	1,814	8.8	33,600	3.6	-19.8	1752.3
인도	14,863	0.6	1,571	7.6	8,400	0.9	-43.5	434.7
호주	48,327	2.0	160	0.8	20,200	2.2	-58.2	12525.0
미국	148,993	6.1	1,432	6.9	84,300	9.0	-43.4	5786.9
캐나다	33,316	1.4	361	1.7	15,900	1.7	-52.3	4304.4
멕시코	6,494	0.3	51	0.2	2,000	0.2	-69.2	3821.6
영국	37,709	1.5	546	2.6	13,600	1.5	-63.9	2390.8
프랑스	24,290	1.0	349	1.7	10,800	1.2	-55.5	2994.6
독일	19,525	0.8	273	1.3	9,700	1.0	-50.3	3453.1
이탈리아	12,350	0.5	158	0.8	5,200	0.6	-57.9	3191.1
스페인	10,535	0.4	87	0.4	3,600	0.4	-65.8	4037.9
러시아	13,142	0.5	265	1.3	2,000	0.2	-84.8	654.7
중동지역	9,836	0.4	132	0.6	6,500	0.7	-33.9	4824.2
기타	99,682	4.1	6,074	29.4	51,200	5.5	-48.6	742.9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2년 12월 경제 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2년 12월 21일)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1>과 같음

<표11> 일본 주요 경제지표

	2020년	2021년	2022년 1-3월	2022년 4-6월	2022년 7-9월	2022년 8월	2022년 9월	2022년 10월	2022년 11월
<GDP>									
실질국내총지출(GDP)	-4.3	2.1	0.4	1.6	1.5				
<개인소비>									
실질총고용자소득	-1.8	1.2	0.0	-1.1	-1.7	-1.9	-0.8	-1.8	
<민간설비투자>									
자본재출하지수(수송기계제외)	-9.5	13.2	4.4	-0.8	12.9	17.8	13.4	9.1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81.5	85.6	87.3	85.3	86.2	90.3	85.7	87.1	
증감률	-9.9	5.0	4.9	-1.3	0.0	4.6	1.1	-1.8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1.6	-10.8	-8.7	5.2	6.7	20.1	12.7	
<수출입>									
수출수량	-11.7	12.0	-0.8	-3.1	0.2	-1.1	3.8	-0.3	P -3.6
수입수량	-6.4	5.1	1.3	-1.2	1.1	2.7	-1.7	P 5.7	P -4.6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10.4	5.6	-0.6	-3.7	4.2	5.8	9.6	3.0	
<법인경상이익-재무성>									
전체규모-전체산업	-27.3	41.8	13.7	17.6	18.3				
<도산>									
기업도산건수(건)	7,773	6,030	1,504	1,556	1,585	492	599	596	596
증감률	-7.2	-22.4	-3.2	4.4	9.5	5.5	18.6	13.5	13.9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2.8	2.8	2.7	2.6	2.6	2.5	2.6	2.6	
<물가>									
국내기업물가	-1.2	4.6	9.3	9.7	9.6	9.6	10.3	9.4	P 9.3
소비자물가(종합-고정기준)	0.0	-0.2	0.9	2.4	2.9	3.0	3.0	3.7	
<금융>									
넷케이평균주가(엔)	22,705	28,836	27,156	26,891	27,610	28,351	27,418	26,983	27,903
환율(엔/\$)	106.73	109.89	116.32	129.71	138.24	135.24	143.14	147.01	142.44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2년 11월, 12월 등)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음
 - 수요측 통계인 ‘가계조사’ (10월)에서는 실질소비지출은 전월대비 1.1% 증가하였고, 판매측 통계인 ‘상업동태통계’ (10월)에서는 소매업판매액이 전월대비 0.3% 증가하였음
 - 소비동향의 배경을 살펴보면, 실질총고용자소득은 약세이고, 소비자 심리도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최근 상황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면, 신차판매대수는 회복되고 있음
 - 가전판매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여행은 착실하게 회복되고 있고, 외식은 최근 회복 기조가 완만해지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위드 코로나’ 상황 하에 회복되어 갈 것으로 기대됨

- 설비투자는 회복되고 있음
 - 수요측 통계인 ‘법인기업통계계보(季報)’ (7-9월기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2022년 7-9월기는 전기(前期)대비 2.4% 증가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동(同) 2.3% 감소, 비제조업이 동(同) 5.1% 증가하였음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회복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투자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은행 短觀(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12월 조사)에 따르면, 전체산업의 2022년도 설비투자 계획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短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개선되고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는 최근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건축공사비 예정액은 증가하는 경향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건조한 기업수익 등을 배경으로 회복 경향이 계속될 것이 기대됨

- 주택건설은 바닥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음
 - 자가주택 착공은 보합 상태임
 - 임대주택 착공은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분양주택 착공은 바닥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음
 - 총 호수는 10월에 전월대비 1.5% 증가인 연율 87.1만호로 되었음
 - 수도권 맨션 총판매호수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로 되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투자는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하고 있음
 - 10월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대비 1.0% 감소, 11월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대비 12.7% 감소, 10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월대비 0.4% 감소하였음
 - 향후전망에 관해서는 보정예산의 효과도 있어서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이며, 수입도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이며,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적자로 나타나고 있음
 -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수입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10월 무역수지는 수입금액 증가로 적자폭이 확대되었고, 서비스수지도 적자폭이 확대되었음

[기업 활동 및 고용 상황]

- 생산은 회복 움직임에 답보상태가 보임
 - 광공업생산지수는 10월에 전월대비 3.2% 감소하였음
 - 광공업재고지수는 10월에 전월대비 0.5% 감소하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11월은 전월대비 3.3% 증가, 12월은 전월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는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생산용 기계는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전자부품·디바이스는 최근 감소하고 있음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 쪽으로 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외경기 하향 등에 따른 영향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상황에 관해 의견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보면, 제3차 산업 활동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음
- 기업 이익은 일부 약세가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개선되고 있고,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도산건수는 대체적으로 보합상태임
 - ‘법인기업통계계보’ (7-9월기)를 보면, 2022년 7-9월기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18.3% 증가, 전기대비 5.3% 감소하였음

- 기업의 업황 판단에는 회복 움직임이 보임
- 도산 건수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인데, 10월 596건 이후 11월은 581건으로 됨
- 고용 상황은 회복되고 있음
 - 완전실업률은 10월에 전월과 같이 2.6%로 됨
 - 노동력인구, 취업자수, 완전실업자수는 감소하였음
 - 취업률 및 신규구인수는 최근 보합권내로 되어 있고, 유효구인배율은 회복되고 있고, 제조업 잔업시간은 최근 보합권내로 추이하고 있음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현금급여총액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실질총고용자소득은 약세임
 - 일본은행 短觀(12월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인원 판단은 부족초과로 나타남
 - 또한 당장의 상황에 관해서는 민간의 구인 동향은 회복되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물가 및 금융]

- 일본 국내기업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도 상승하고 있음
 - 11월 국내기업물가는 전월대비 0.6% 상승하였고, 수입물가(엔 기준)는 최근 하락하고 있음
 - 기업 대상 서비스 가격 기조를 ‘국제운수를 제외한 기준’으로 보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
 - 소비자 물가 기조를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책 등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한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음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 (2인 이상 세대)로 살펴보면, 11월에는 전월대비 0.3% 포인트 감소하여 94.0%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는 정책 등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한 기준으로 당분간 상승해 갈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하락하였고, 엔/달러 환율은 엔고 후 엔저 방향으로 추이함
 - 주가는 28,200엔 대에서 27,200엔 대로 하락함
 - 엔/달러 환율은 139엔 대에서 134엔 대까지 엔고 방향으로 추이한 후, 136엔 대까지 엔저 방향으로 추이함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금리는 -0.07% 대에서 -0.06% 대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에는 대체적으로 변화가 보이지 않음
-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잔고(전국은행)는 전년대비 3.0%(11월) 증가하였음
- 머니터리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대비 6.4%(11월) 감소하였고, M2는 전년대비 3.1%(11월) 증가하였음

□ 일본 정부의 2022년 12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2년 12월 21일)

- 현재의 높은 물가 등의 난국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일본경제를 지속가능하고 한 단계 더 높은 성장경로에 올려 일본경제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고 극복 및 경제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경제 대책’ (10월 28일 각의 결정) 및 이를 구체화하는 2022년도 제2차 보정예산에 관해 진척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속하고 착실하게 실행함
- 또 ‘202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12월 2일 각의 결정)과 금후 책정할 ‘2023년도 경제 전망과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적 태도’ 도 고려하여 2023년도 정부예산을 정리함
- 금후에도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재정 운영의 틀을 견지하고, 민간수요 주도의 자율적인 성장과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경제상황 등을 주시하고, 주저 없이 기동적인 거시경제 운영을 실행해 나감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현할 것을 기대함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분야 정책과 농산물 및 비료 관련 정책 동향

-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 및 스타트업 분야 펀드 신설
 -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의 지원에 나서기로 하였으며, 상품 개발이나 매입에 드는 비용을 최대 3,000만 엔 보조하며, 1만사를 목표로 함

- 지원을 받는 기업은 수출에 대한 과제나 경영계획의 입안 등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생산설비의 도입이나 선전에 해당하는 보조금도 활용할 수 있음
 - 한편, 관민펀드 산업혁신투자기구(JIC)는 2023년 1월 2,000억 엔의 새로운 펀드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JIC의 새로운 펀드는 양자컴퓨터나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딥테크(Deep Tech)’ 분야의 스타트업에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함
- 농산물 및 비료 관련 정책 방안
- 일본 정부는 12월 27일 ‘식료안정공급·농림수산업기반강화본부’ 회의를 총리 관저에서 열고 밀과 콩 등 자급률이 낮은 농산물 국산화를 축으로 하는 정책 대강(大綱)을 결정했다고 함
 -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식품과 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위험이 부각되었음
 - 대강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보리, 대두, 사료작물 등에 대해 국제적인 조달 경쟁의 격화로 평상시에도 생각하는 조건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음
 - 일본 농림수산성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특정중요물자’로 지정된 비료에 대해 원료의 국내수요 3개월분에 해당하는 양을 민간비축하는 것을 담은 대처방침을 발표했다
 - 비료원료의 대부분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조달이 멈췄을 경우에도 비료 제조를 국내에서 계속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목적임
 - 수입 원료 등으로 만든 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비의 효율화와 퇴비와 하수 슬러지 등 국내 자원의 활용도 추진함

(출처: 닛케이신문, 2022.12.16., 2022.12.27., 2022.12.28.; 산케이신문, 2022.12.28.)

□ 탈탄소화 관련 동향

- 탈탄소화 관련 대책 및 방안
- 일본 경제산업성은 12월 14일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과금하고 배출 삭감을 촉구하는 탄소 프라이싱을 둘러싸고, 화석 연료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 2028년도 경부터 연료당 배출량에 따른 부과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정책을 굳혔음
 - 부과금과 배출량 거래 모두 작은 부담으로 시작하며, 본격화는 30년대에 들어가고 나서가 됨

- 한편, 경제산업성은 수소와 암모니아의 보급을 위한 지원책 개요를 정리하였음
 - 수소나 암모니아의 공급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가격을 경제산업성이 정하고, 석탄이나 LNG의 가격과의 차이를 기초로 보조액을 결정하는데, 보조액은 일정기간마다 재검토함
 - 또한, 지원기간을 15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20년까지의 연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산업성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자동차, 화학공업, 제지, 시멘트 등 제조업 5개 업종에 대해 비화석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해 기업에 요구하는 목표를 결정했음
 - 자동차는 전기 사용량 중 재생 가능 에너지나 원자력 등 비화석 전원 비율을 30년도까지 59%로 함
 - 철강업은 전로에 대해 59%의 비화석 전원(電源) 목표를 요구하며, 시멘트는 소성 공정에 사용하는 연료의 비화석 비율을 28%로 하며, 화학공업과 제지업 중 석탄을 주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가진 기업의 경우에는 30년도 석탄 사용량을 13년도 대비 30% 삭감하도록 하고, 그 이외 기업에는 비화석비율을 59%로 하도록 요청함
- 일본정부는 12월 22일 GX(Green Transformation) 실행 회의에서 GX 실현을 향한 기본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 ‘GX 실현을 향한 기본 방침(안): 향후 10년을 응시한 로드맵(GX 実現に向けた基本方針(案): 今後10年を見据えたロードマップ)’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공급이 국민생활, 사회·경제활동의 근간이며 일본의 최우선 과제이며, 향후 GX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에너지 안정 공급 확보는 대전제인 동시에 GX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 안정 공급의 확실성 보장으로 이어짐
 - 에너지 안정 공급 확보를 위해서는 가솔린, 등유, 전력, 가스 등 소매가격에 주목한 긴급피난적인 격변완화조치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위기에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에너지수급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화석 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부터의 탈피를 목표로 수요 측면에서 철저한 에너지 절약, 제조업 연료 전환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급 측면에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재생 에너지, 원자력 등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탈탄소 효과가 높은 전원을 최대한 활용함

- GX 실현을 통해 일본 기업의 탈탄소 기술의 강점을 활용하여 세계 규모의 탄소 중립 실현에 공헌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창출하고 일본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려 미래 경제성장이나 고용과 소득 확대로 연결하는 것이 요구됨
- 위와 같은 기본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GX 실행회의 등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처를 진행시킴
 - 1) 철저한 에너지 절약 추진, 제조업 구조 전환(원료·연료 전환)
 - 2) 재생가능 에너지의 주력 전원화(電源化)
 - 3) 원자력 활용
 - 4) 수소·암모니아의 도입 촉진
 - 5)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가스 시장 정비
 - 6) 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 등 국가 관여의 강화
 - 7) 축전지 산업
 - 8) 자원 순환
 - 9) 운송 부문의 GX
 - ① 차세대 자동차
 - ② 차세대 항공기
 - ③ 제로·에미션(Zero Emission) 선박
 - ④ 철도
 - ⑤ 물류·인류(人流:사람의 이동)
 - 10) 탈탄소 목적의 디지털 투자
 - 11) 주택·건축물
 - 12) 인프라
 - 13) 카본 리사이클 / CCS
 - ① 카본 리사이클 연료
 - ② 바이오·모노즈쿠리(바이오 제품의 이용)
 - ③ CO2 삭감 콘크리트
 - ④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 14) 식량·농림수산업
- 국제공약 달성과 일본 산업경쟁력 강화, 경제성장의 동시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투자가 필요하며, 거액의 투자가 필요함
- 이러한 GX 투자를 관민협조로 실현하기 위하여, ‘성장 지향형 카본 프라이싱 구상’을 신속하게 실현·실행해 나가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3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함
 - 1) ‘GX 경제 이행채(移行債)(가칭)’ 등을 활용한 대담한 선행 투자 지원(규제·지원

일체형 투자촉진책 등)

2) 탄소 프라이싱을 통한 GX 투자 선행 인센티브

3) 새로운 금융 기법 활용

- 일본은 세계규모에서의 GX 실현에 공헌하기 위해서 클린 시장의 형성이나 혁신 협력 주도해 가며, 세계 탈탄소화에 공헌하기 위해 일본 기업의 기술을 살려 글로벌 클린 시장의 창설에 기여함과 동시에, 아시아의 향후 증대하는 에너지 투자에 증당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해 나감
- 또한, 사회 전체의 GX 추진을 위해 공정한 이행(Just Transition), 수요 측에서의 GX 추진, 중견·중소기업의 GX 추진을 함
- 마지막으로 GX를 실현하는 새로운 정책 이니셔티브 실행 상황의 진척 평가와 재검토를 효과적으로 실시해 나감

(출처: 닛케이신문, 2022.12.13., 2022.12.14., 2022.12.23., 내각관방 홈페이지, GX実現に向けた基本方針案~今後10年を見据えたロードマップ~, https://www.cas.go.jp/jp/seisaku/gx_jikkou_kaigi/dai5/index.html)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 일본기업 인력 관련 동향

○ 일본기업의 고령자 고용 상황

- 일본 후생노동성의 2022년 고령자 고용 상황 조사에 의하면 정년연장과 계속고용 도입 등으로 희망자에게 70세까지의 취업 기회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27.9%인 것으로 나타났음
- 취업 기회 확보 방법은 계속고용제도 21.8%, 정년제 폐지 3.9%, 정년 인상 2.1% 등으로 나타났음
- 종업원 수 별로는 300명 이하 기업의 28.5%가 고령자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보하였고, 301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는 20.4%로 나타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중소기업이 긍정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일본 총무성은 12월 27일 11월 취업자 수(계절 조정치)가 전월대비 0.3% 감소한 6,713만 명이었다고 발표했다

(출처: 닛케이신문, 2022.12.16., 2022.12.27.)

□ 일본 자동차산업 관련 동향

- 일본 자동차기업 및 자동차산업 관련 지자체 동향
 - 토요타자동차는 개발 중인 수소엔진차로 12월 17일 태국 동북부 브리람(Buriram)의 25시간 내구 레이스(25H Endurance Race)에 참가하였음
 - 수소엔진차량은 주행 중에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며, 토요타는 지난해부터 수소엔진차로 일본 내구 레이스에 참가하여 시판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한편, 토요타자동차는 12월 18일 픽업트럭 전기차 양산을 내년에 시작할 것으로 밝혔음
 - 후쿠오카현은 12월 26일 상용차 기술 개발 회사 커머셜·재팬·파트너십·테크놀로지스(CJPT: Commercial Japan Partnership Technologies)와 수소연료전지(FC) 트럭 등 FC 차량의 보급을 향해 제휴 협정을 체결했음
 - CJPT는 2021년에 토요타자동차 등이 참가하고 있는 상용차 기술개발 회사로 상용차에 있어서의 CASE(Connectivity, Autonomous, Shared service, Electrification) 기술개발과 실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사이타마현의 자동차 부품 메이커 각사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과 혼다의 공장 재편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음
 - 사이타마현에서는 혼다나 독일 보쉬가 대형 공장을 전개해 왔으나, 혼다가 사야마 공장(사야마시)의 폐쇄를 결정하고 마렐리홀딩스(Marelli Holdings, 사이타마시)가 6월에 파산하여, 산업 구조의 격변에 기업이나 지자체가 대응에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중소 제조업체들은 의료기기, 전자부품 분야에 신규 진입하는 등 생존을 모색하고 있음

(출처: 산케이신문, 2022.12.17., 2022.12.18., 2022.12.26., 2022.12.30.)